

1 한국회계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 운영

가. 개요

- 일시: 2019.5.18(토) 14:30~15:14
- 장소: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511호
- 좌장: 배기수(충북대학교 교수)

나. 발표 및 토론결과 요약

- (주제1)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(IPSAS 42), 사회보장급여
(임정혁 선임연구원,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)

[주요 발표내용]

-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(IPSAS)가 최근 발표한 IPSAS 42, ‘사회보장급여(Social Benefits)’의 주요 내용과 쟁점사항에 대해 소개
 - IPSAS 42는 사회보장급여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새롭게 제시하고 있으며, 관련 부채의 인식 방법과 공시사항을 일반접근법과 보험접근법으로 나누어 규정
 - IPSASB는 IPSAS 42를 전 세계 공공부문 실체의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회계처리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 확보를 기대하며, 사후 이행검토를 통해 IPSAS 42를 개선할 계획
- 우리의 국가회계기준 또한 이러한 IPSASB의 개선방향에 주목하여 대응할 필요

[주요 토론내용]

- (토론) 현행 국가회계기준의 지급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했을 때 부채 금액과 IPSAS 42의 일반 접근법을 적용한 경우 부채 금액에는 큰 차이 발생 확인 필요

- (답변) IPSAS 42는 차기 급여 즉 매월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라면 다음 달에 지급해야 할 사회보장급여 지급 예상액을 부채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므로 현행의 지급기일 도래 기준의 부채 금액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
- (토론) IPSAS 42의 일반접근법에서 말하는 ‘차기 급여’가 정부가 익년에 지급해야 할 사회보장급여 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, 현행 지급기일 도래 기준과 금액적 차이가 200조원 이상으로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
- (답변) IPSAS 42는 ‘차기’의 의미를 월 혹은 분기 등 사회보장급여의 지급 주기로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함. 예를 들어, 차기 급여를 수급할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주기와 현재 의무의 발생 여부를 연관 지어 설명



〈한국회계정보학회(5.18.),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511호〉

□ (주제2) 국회회계정보의 의미와 정책적 활용
(허웅 회계사, 이정지울회계법인)

[주요 발표내용]

- 기존의 세입결산서 및 세출결산서에서 얻을 수 있는 회계정보는 예산과 비교가 가능하고, 이해하기 쉬우며, 통제 기능이 강력하다는 장점이 있음
- 하지만 최근 이슈인 세대 간 활용 및 균형과 관련한 정보의 산출은 쉽지 않음

- 반면, 국가재무제표는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균형에 대한 정보를 내포할 수 있음
 - 재정운영표는 국가의 정책이 현재 세대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따른 부담 효과, 정책의 성과평가 시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
 - 재정상태표의 경우 세대 간 재정건전의 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부와 정책 의사결정의 잠재력 등 국가의 역량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



〈한국회계정보학회(5.18.),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511호〉

- (주제3) 국가회계의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차이 분석
(엄기중 연구원,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)

[주요 발표내용]

- 발생주의에 의해 산출된 국가재무 정보는 그 정보의 유용성과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제한됨
- 국가회계에서 발생주의정보와 현금주의 정보의 차이 분석을 통해 발생주의 정보의 차별적 정보력을 확인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
 - 발생주의가 도입된 2011년 이후 현금주의 지출과 발생주의 비용은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연간 약 47조~54조원, 용자 지출로 인하여 연간 약 30조~37조원, 발생계정으로 인하여 연간 약 40조~98조원 등의 차이가 발생

-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획재정부의 2015년 사례를 보면, 현금주의 지출은 약 207조원인 반면, 발생주의 비용은 약 25조원으로 무려 182조원의 차이가 발생
- 정부는 재정지출 관련 예산 편성 등 정책결정 시 현행과 같이 현금주의 지출규모뿐만 아니라 발생주의에 따른 비용도 고려해야 함
- 발생주의는 향후 지출 가능성이 있는 부채까지 인식함으로써, 미래 재정부담능력을 예측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발생주의 정보는 재정건전성 관리와 재정계획 수립에 필수적임



〈한국회계정보학회(5.18.),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511호〉